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인쇄

‘직지’ 한글·영문번역서 발간

조계종, “2005년 처음으로
번역서 발간한 바 있어
지난해 감수·재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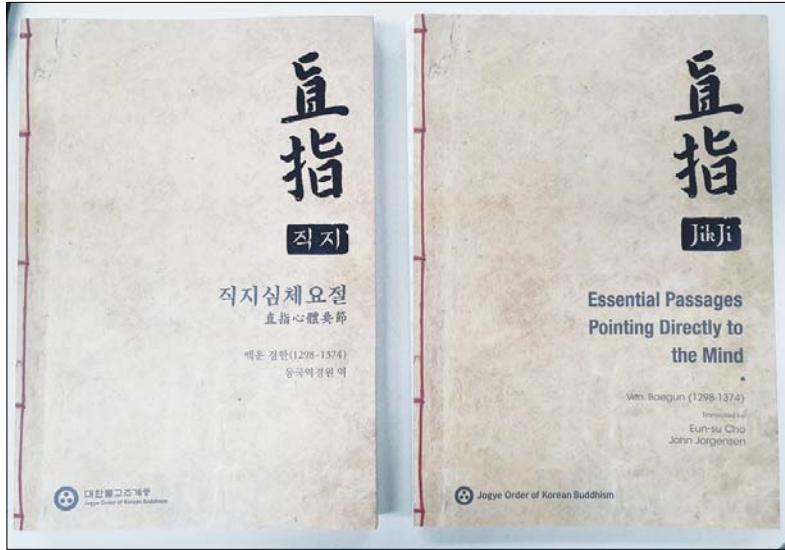
세계 최초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의 한글 및 영문번역서가 발간됐다.

대한불교조계종은 27일 “이 번역서는 2005년 종단에서 처음 번역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20년 감수와 재편집을 통해 올해는 보다 완결된 자료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7년은 직지가 인쇄된 지 650주년되는 해이다. 조계종은 직지의 한글번역, 영어번역에 이어 올해에는 불어 번역서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지는 백운경한 스님이 엮은 책이다. 금속활자로 주조된 책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 불조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며 이를 줄여 ‘직지’로 부른다. 부처님과 조사들의 선의 요체에 대한 가르침 중 핵심을 발췌해 수록한 책으로, 선의 교과서라고도 불린다.

직지의 내용이 세계 최초 금속활자의 역사로 남겨진 것은 백운스님이 입적한 뒤 1377년에 충북 청주 흥덕사에서 백운화상의 제자스님들에 의해서였다. 직지의 인쇄술은 독일 구텐베르크의 542형 성서보다 78년 앞서 제작됐다.



직지 한글·영문번역서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제공)

직지는 구한말 초대 주한프랑스 공사였던 폴 랑드블랑시에 의해 수집, 이후 경매를 거쳐 앙리베베르를 통해 1950년경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됐다. 이후 1972년 세계도서박람회 때 최초로 공개됐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교포 박병선 여사가 도서관에서 발견한 덕분이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는 상, 하 두 권이었으나 현재는 하권 1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뉴시스

“출판계 표준계약서, 정의롭지 못한 조항”

이동문학인협회, “출판계, 문체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수용해야”

대한국어동문학인협회는 26일 출판계가 지난 15일 제정, 발표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동문학인협회는 이날 성명 발표와 함께 출판계의 통합표준계약서 철회와 출판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해 작가들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매우 불공정하다”며 “아울러 존속기간 만료2월 이내 저작권자의해지 통보가 없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10년이 연장되는 것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정의롭지 못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작인격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외했다. 이는 저작권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저작권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불공정한 계약서”라고 밝혔다.

이동문학인협회는 “아동청소년문학은 성격상 아동극, 뮤지컬, 등 2차적 저작물이 활발한 갈래이다. 하지만 출판계통합표준계약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출판사에 위임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역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평등 조항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진안군, 내달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진안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금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고,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되는 자동 재충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자동 재충전 제도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2021년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되며, 대상자에게 1월 28일~29일

이틀간 충전완료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이전인 카드 보유자, 2020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재충전 대상자가 아닌 경우, 2월 1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ARS,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안군은 1,388명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mm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유태만 기자

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 완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여행업 등록 문턱은 낮추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 역량을 강화한다.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다소 수급이 어려웠

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췄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예정이다. /뉴시스

콘진원 ‘콘퍼니티 프로젝트’ 스타트업 매출 2배 성장

AI기술기업 ‘스켈터랩스’, 177억 규모시리즈B 투자유치 완료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유망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유치 및 비즈니스 연계를 이끌기 위한 ‘콘텐츠 기업 연계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데모데이’(콘퍼니티 데모데이)를 지난 26일 온라인 개최했다.

‘콘퍼니티 데모데이’는 2020년 콘퍼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수 지원기업을 벤처캐피털 및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관계자 대상으로 소개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이번 데모데이는 온라인 투자 피칭, 1:1 투자상담 및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투리번 ▲라이브케이 ▲살린 ▲수박랩 ▲알파서클 ▲에스프레소미디어 ▲웨

인일스벤처스 ▲스켈터랩스 ▲텐디 총 9개 스타트업이 피칭을 진행했다. 특히 ▲CJ ENM ▲롯데컬처웍스 ▲LG전자 ▲MBC 4개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사 외에도, 유수기관의 투자자 80여 명, 콘텐츠 기업 관계자 1280명 등 총 1360여 명이 참석했다.

2020년 콘퍼니티 프로젝트에는 ▲CJ ENM ▲롯데컬처웍스 ▲LG전자 ▲MBC가 오픈이노베이션 파트너사로 참여해, 실감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개발, 방송과 결합한 미래 콘텐츠 사업 발굴, 영화관 및 영화 사업에 적용 가능한 혁신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는 스타트업을 콘진원과 공동으로 발굴·육성했다.

이 중 ‘수박랩’은 롯데컬처웍스와 함께 페

이퍼토이로 활용 가능한 컵 케리어를 기획해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고, 가수 고(故) 터틀맨의 복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CJ ENM 터틀맨의 AI 음악 프로젝트 ‘다시 한 번’에서는 디페이크 기술 적용을 위해 ‘에스프레소미디어’의 고품질 복원 업스케일링 기술이 활용되는 성과를 보였다.

2020년 콘퍼니티 프로젝트의 참여 스타트업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성장했으며, 이 중 AI 기술 기업 ‘스켈터랩스’는 177억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업체별 IR과 그간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콘진원 누리집(www.kcca.kr) 또는 넥스트유니콘(nextunicorn.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